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2017 PAPER ROAD IX - Shanghai, CHINA

1. 행사취지

본래 종이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서기 610년 고구려 스님 담징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졌으며 이후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 장군에 의해서 다시 서양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겪었다. 우리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우리의 종이 한지와 한지문화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관심 부족으로 세계를 무대로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은 한지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꾸준히 해외 교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동안의 행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한지문화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2018년 동계올림픽이 표방하고 있는 문화와 평화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원주의 특화사업인 한지문화를 선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질기고 강한 우리 민족의 품성을 닮은 한지가 중국에서 재발견되고 한국의 찬란하고 우수한 종이문화를 선보임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강원도’, ‘원주’, ‘한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행사명 : ‘2017 PAPER ROAD IX- Sanghai, CHINA’(상하이한지문화제)
- 행사기간 : 2017년 12월 7일(목) ~ 20일(수)
- 행사장소 : 중국 주상하이한국문화원(개막식, 전시, 워크숍)
중국 상하이 흥차오 힐튼호텔(한지패션쇼)
- 행사내용 : 개막식 및 한지패션쇼, 전시, 워크숍
- 주 최 :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주상하이한국문화원
- 주 관 :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주상하이한국문화원
- 후 원 : 강원도, 원주시

2. 세부사업

한지는 <文房四友 종이, 붓, 벼루, 먹> 중의 하나로 불릴 만큼 우리 민족의 일상과 문화에 밀접하게 발전해 온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백의민족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백지(白紙)라고도 하며, 아흔 아홉 번의 손길을 거쳐 백 번째 완성되는 종이라고 하여 백지(百紙)라고도 불린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던 시절, 그 흔한 플라스틱도 없고 나무가 귀하던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종이를 오려붙여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꼬거나 종이죽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종이 옷 뿐 아니라 생활소품, 등잔대, 물을 담는 그릇, 종이요강까지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집안의 장식품을 만드는 등 우리 선조들은 한지를 이용, 생활 속의 멋과 여유를 찾기도 하였다

이렇듯 오랜 세월 생활 속에서 한지가 널리 쓰이는 것은 보존성, 견고함과 함께 부드러우면서 질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미술분야의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지금까지 한지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될 ‘2017 PAPER ROAD IX-Sanghai, CHINA’는 선조들의 지혜와 멋,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을 한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향후 한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 구성한다.

■ 한지패션쇼

-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17:00
- 장소 : 중국 상하이 흥차오 힐튼호텔
- 내용 : ‘2017 PAPER ROAD IX-Sanghai, CHINA’의 메인 이벤트인 한지패션쇼에서 한지와 한지 직물로 전통과 현대의 컨버전스를 표현한 다양한 의상이 선보인다. 특히 본 한지패션쇼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한중 우호의 밤 행사’의 주 퍼포먼스로서 구성된다.
- 참여작가 : 문연희(지승작가), 강영숙(의상디자이너), 外
- 연출 : THE LINE
- 콘셉트 : 한국인의 정신, 한지로 옷 입다
- 소요시간 : 20분(17:40~18:00)

□작품 및 행사참고 이미지

	
<p>문연희 작가 의상</p>	<p>문연희 작가 의상</p>
	
<p>(참고) 2016 PAPER ROAD VIII-OSAKA, JAPAN</p>	<p>(참고) 2016 PAPER ROAD VIII-OSAKA, JAPAN</p>

■ ‘2017 PAPER ROAD IX-Sanghai, CHINA’ 행사·전시 개막식

- 일시 : 12월 8일(금) 17:00
- 장소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2층 전시실 내
- 개막식 참가자 명단(우호의 밤 행사 참가 명단과 동일) : 이창복(한지개발원 이사장), 장응열(한지개발원 이사, 한지장인), 김진희(한지개발원 상임이사), 이선경(한지개발원 이사), 김정순(한지개발원 이사/작가), 이부옥(한지개발원 이사/작가), 김영애(작가/워크숍), 나서환(작가/워크숍), 강영숙(디자이너), 이주은(한지개

발원 기획홍보팀장), 송종국(한지개발원 시설팀장), 김동신(한지개발원 교육팀장), 흥관표(한지공예학교 학생), 김미희(한지공예학교 학생/한지문화연대 임원), 이상표(강영숙 동행/솫대촌 대표), 김금주(원주한지문화제 위원), 박진규(채움기획 대표). 현재 17명.

□ 개막식 식순

- 인사말 : 서동욱(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님)/부재 시 부총영사님
- 인사말 : 이창복(사단법인 한지개발원 이사장)
- 축사
- 내·외빈 소개
- 행사 및 전시소개 : 김진희(사단법인 한지개발원 상임이사)
- 라운딩
- 식사

■ 전시

□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 20일(수) ※ 설치_12월 5일(화)~6일(수)

- 오프닝 일시 : 12월 8일(금) 17:00

□ 장소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2층 전시실 내

□ 내용 : 한지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는 작품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전시 구성

□ 구성 : 조선시대 유물, 원주한지, 공예, 현대조명, 닥종이인형

□ 전시 참여작가 : 김남순, 김영애, 김원자, 김정순, 김진숙, 김한수, 나서환, 문연희, 문유미, 소빈, 신경혜, 이부옥, 이상희, 이정화, 장응열, 전은주. 총 16인.

□ 작품 리스트

■ 워크숍 ※ 진행 시 통역 필요

-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14:00~17:00
- 장소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3층 아리랑홀
- 내용 : 현지인이 전시 참여 작가와 함께 한지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과 한지, 2017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였음.
- 참여 인원 : 각 워크숍 당 50명(문화원에서 사전접수)
- 세부 프로그램
 1. 한지 지승기법으로 만들어보는 목걸이·팔찌 세트
 - 진행 : 나서환(한지공예학교 지승반 강사), 흥관표
 - 시간 : 14:00~15:20
 - 준비물 : 한지
 2. 닥종이인형으로 표현하는 수호랑 반다비(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 진행 : 이영애(한지공예학교 닥종이인형반 강사)
 - 시간 : 15:20~16:50
 - 준비물 : 수호랑·반다비 몸체, 한지, 풀, 종이컵(문화원), 나무젓가락(문화원)
- 워크숍 아이템 이미지



3. 기대효과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통한 강원도, 원주시 방문을 높이고 한지테마파크 홍보에 기여
- 한국의 종이인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중국과의 문화교류 모색
- 중국과 원주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 모색